

# 젊음의 열기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

## 백상예술제전 내일(28일)부터 3일간 ... 반미·반전마당 진행 등



지난 백상예술제전 중 농구경기를 하는 모습.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날아라 민족동국'을 모토로 내일(28일)부터 3일간 백상예술제전을 개최한다.

구성원간 단합의 장을 만들고 한 해의 학생회활동을 되돌아보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예술제전은

주간

'민족동국'과 '대학생활'을 주제로 촬영한 디지털카메라사진 공모전과 대외활동 우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마라톤은 첫날 정오 불상 앞에서 출발해 정문, 국립극장을 거쳐 남산순환도로를 왕복하는 약 6km구간으로 진행되며 교수·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남·여우승자에게는 금반지 7돈이 주어지며 △2등=시계 1개 △3등=5만원 상당 쿠폰 △6등, 15등, 35등, 행운상=문화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날에는 △농구대회 결승=오후 2시 만해광장 △장미 릴레이 달리기=오후 1시 통일광장 △폐막식=오후 5시 30분 중강당에서 열린다.

폐막식은 가수 러브홀릭·전지인의 공연과 △개인·단체 노래자랑 △총학생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영상물 상영 △중요 문예단 공연 △디지털카메라·대학시절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며 노래자랑에는 교직원도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추기과병반대에 대한 학내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반미반전마당도 함께 열린다. 반미 만화전과 미국의 전쟁역사 사진전이 행사기간 동안 팔

정도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노랑 리본을 장식한 평화가게가 29일 해화관 옆 쉼터에서 열리며 극단 '신명'이 반전·파병반대를 주제로 하는 마당극을 28일 오후 2시 불상 앞에서 진행한다.

이번 예술제전과 관련해 유영빈 총학생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즐겁게 어우러지고 파병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디카공모전 수상작은 행사 후 중앙도서관 앞에 전시하며 수기 공모전 수상작은 동국사랑 홈페이지(www.dglove.net)에 게시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늘(27일) 오후 5시까지 동국사랑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대학부 dmz@dongguk.edu

# 2004학년도 교과목 대폭 개편

## 전공 101·교양 10개 강좌 신설 ... 전공강화·다양한 선택부여

2004학년도 개설되는 전공·교양 교과목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는 교육과정개편에 따라 교과목이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명칭변경 △학점 △개설학년·학기가 조정된 것으로 전공교과목은 200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교과목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된다.

▲전공교과목=학과제로 전환하는 단과대를 중심으로 총 101개 과목이 신설되고 50개 과목이 폐지된다.

이 중 문과대의 경우 36개 교과목이 신설되는 등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학과별 개설학점이 93학점으로 확대된 이과대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도 최소 2개 이상의 교과

목이 신설된다. 또한 전공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사학과와 '역사학입문'과 국문과의 '현대문학입문' 등 1학년 전공교과목이 증설된다.

이밖에 독일학과에서 학과의 성격에 적합한 독어독문학과와 경우 17개 교과목이 신설되고 13개가 폐지되는 대규모 개편이 단행됐으며, 개설학점이 80학점으로 하향 조정된 법학과는 1개 교과목이 신설되고 7개 교과목이 폐지된다.

▲교양교과목=일반교양을 특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불교생태학 관련 교과목 개설 등 제6영역을 중점적으로 개편했다. ▶관련기사 2면

생태학=불교와 생태학의 만남 △학부생태학 교양교과목=한미 관계, 소설과 영화의 대화 △고전관련 교과목=우리 옛 시 이야기, 삼국유사의 이해, 동양의 지혜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관련 교과목=자원, 환경 및 개발이며 모두 제6영역에 신설된다.

또한 외국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5영역에 △현대 독일어 회화 △현대 일본어 회화 △현대 중국어 회화 교과목이 개설된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운영실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열기 속으로 '다모어' ... 동아리연합회 가을 축제(이하 동연제)가 지난 22일부터 3일간 열렸다. '0(夜) 다(多)모어'를 모토로 진행된 이번행사의 폐막식은 AJAX, SSID, ODC 등의 동아리와 전인권 씨가 무대에 올라 열기를 더했다.

설윤진 기자 dabsws@dongguk.edu

# 농구부, 전국체전 은메달 획득

## 경북 대표로 출전해 상무와 결승전 치러

본교 농구부(감독=최승호)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84회 전국체전에서 경북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전북대, 건국대 등을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지난 16일 군산 월명 체육관에서 열린 상무와의 경기에서 94:104로 패했다.

이번 경기에서 본교는 1, 2쿼터 큰 점수차로 뒤처지다 3쿼터 역전했으나 경기말 상대편의 득점포를 막지 못해 결국 역전패했다.

이와 관련해 농구부 감독은 "일반 대표팀 선수가 대거 출전한 상무와의 경기에서 학생들이 선전한 결과"라며 "자신감을 얻은 만큼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차별적 이미지 구축 필요"

## 홍보실, '홍보전략 발전방안' 프리젠테이션

본교 홍보활동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보실(실장=신관호)은 지난 20일 '본교 홍보전략 발전방안'을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홍보 활동 평가 △타 대학 활동 평가 △홍보전략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관호 홍보실장은 "대학경쟁이 치열해 학교 홍보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장하용(신문방송학), 김병현(광고학)교수가 고등학생, 재학생, 동문, 학부모 등 총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본교는 '불교대학'과 '역사와 전통'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두드러진 반면 교수진, 발전가능성 등 대학의 정체성을 추

구할 수 있는 이미지 구축에는 타대에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이미지를 통해 △정체성 구축 △홍보 예산 확대 △일관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홍보실은 본교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수해피해 대책마련

#### 27명에게 학비보조금 지급

학생복지실이 지난 17일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27명의 학생에게 50만원씩 학비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달 중앙도서관 등에서 모금한 9만 8천여 원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모금한 10여만 원을 태풍피해로 사망한 고이서진 학생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 '교육' 발전 방향 제시 ③ 전공교육(해설보도면)

육지전생사 금생수자사 육지내생사 금생작사시(欲知前生事 今生受者是 欲知來生事 今生作者是)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지금 받는 삶을 보고,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행동을 보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가르침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기업의 검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뜯어낸 정치인들이 참회는 커녕 최후의 발악인 양 오히려 목청을 드높이니 한심하다. 석고대죄해도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조폭들의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저들이 과연 민생의 고초를 책임지는 위정자인가 싶은 생각이 이르면 치솟는 분노를 가눌 길 없다. 허기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당하기에 집착해 국회에서 폭언과 멸살같은 일을 반복듯 해대는 저들이 아닌가.

정치혁명은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정치자금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회계지출 내역은 날날이 국민 앞에 공개돼야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로 연간 수백억씩 정당운영

비를 지원하는 제도야말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제안하고픈 시급한 과제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원당사자인 국민들은 모른다. 미·영·프·일 등 선진국의 경우 선거자금은 보조받지만 정당운영비는 거의 받지 않거나 소액을 받을 뿐이다. 핀란드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많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지출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론 투명성 제고에 따른 조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강 건너 남의 집 일일뿐이다. 그런 저들이 추악한 범죄를 자행하고도 잘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으니, 국민을 봉으로 보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누가 더 깨끗한가로 승부하기보다 누가 더 더러운가로 승부를 가누는 한국정치의 자화상을 이젠 국민의 심판으로 말씀하시워야 하겠다.

한국 정치인들은 과연 인과응보의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 춘 생 주간불교 편집부장

# 2004학년도 정시모집 확정

## 일부 학과제 모집 ... 12월 10일부터 인터넷접수

200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2월 10일부터 6일간 인터넷(www.dongguk.edu, www.uway.com)을 통해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다음해부터 학과제로 전환하는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산대 정보통신공학과가 학과별로 모집하며 다군 전형은 폐지한다. 또한 가군 전형은 수능 100%, 나군은 수능을 비롯한 논

술고사와 학생부를 종합 평가해 선발하며, 수능반영영역이 5개 영역에서 △인문·예체능계=언어 수리 사탐 외국어 △자연계=언어 수리 과탐 외국어 4개 영역으로 축소했다.

실기고사는 △가군=12월 19일부터 23일 △나군=2004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합격자는 각각 12월 30일과 다음해 1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 보리소

### 인과응보

### 동대신문 기획광고



# 미래도 베끼시렵니까?

잠시 편하기 위해 인터넷이 불러주는 대로

과제를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지적 재산권 침해 ...

버려지는 양심 ...

노력이 없으면 '밝은 미래'도 없습니다.

동대신문사

발전기금 060-700-0119

### 지면안내

#### 8면 출판 문화도시 '북시티'

과주에 위치한 출판 문화정보산업단지 '북시티'를 탐방해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또한 건설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4면 이라크파병 군인을 말한다

남상토론을 통해 이라크전쟁 파병과 파병되는 군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5면 21C 유령, 아우또노미아 선언

다종의 '자율'에 대한 네그리의 사상을 담은 책, 아우또노미아를 들여다 본다.

# 학생회 간부 장학금 차명 신청 논란

## 학교, 전 학생회 간부 대상 조사 ... 차명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일부 학과 학생회장이 학생회 간부 등에게 지급되는 총장장학금을 차명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회 간부가 다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거나 평균점정 등이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다른 학생의 명의를 차용해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학교측은 해당 학생회 간부의 장학금을 지난주 환수하고, 전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실명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차명신청한 학생의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다음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장학금 차명신청은 그동안 학생

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공연히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해 사과대의 한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만으로 활동하기 어려워 장학금으로 활동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총대의원회 의장이 차명사실을 시인하면서 학교측과 총학생회가 △앞으로 차명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 △간부가 받지 못하는 장학금은 다른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학교측이 이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차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선 학생회 간부가 다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총장장학금 중 일정 금액을 해당 학생회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학과 학생회장이 다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학과 부학생회장에게 지급하면 차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학생이 기준 성적에 미달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장학금으로 전환해 일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지난해 합의한 내용이지만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장학금 수혜자명단을 학내언론 또는 대자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총장장학은 학생회 간부의 투명성에 대한 학교·학생의 믿음을 전제로 지급되는 만큼 간부 스스로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야총 주차비 논란

## 장기취업자 주차비 인하요구 학교, 형평성·진입차량 증가 우려

야간강좌총학생회(회장=구지룡·영문4, 이하 야총)가 장기취업자에 대한 주차비 인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야총 주차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총 학생들 중 일부는 회사에서 자가용으로 등교해 수업시간 동안 주차비로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지룡 야총학생회장은 "학내 주차비가 비싸 학생들이 결연될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로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오는 장기취업자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측이 중구청과 협의해 야간 정문 앞 갓길 주차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본교 학생의 주변 시민들도 이용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야간에 수업을 받는 특수대학원 등 다른 단위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차를 가져오는 장기취업자의 기준이 모호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차비를 인하할 경우 현재보다 진입 차량이 증가해 야간강좌 수업이 많은 동국관 앞 밀집화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총무팀은 오늘(27일) 구종도 주변 배관공사로 50여대의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다음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야간주차권을 발부해 주차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야간 동국관 주변은 20여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도서관 지하주차장 역시 충분한 주차공간이 마련된 상태다.

따라서 학교측이 일부 학생에 대한 주차비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은 동선을 줄이기 위해 동국관 앞에 무리하게 불법주차를 하기도 도서관 지하주차장 등을 이용해 주차난을 겪지 않도록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회전무대

### 아쉬운 알리미

○...체육부 경기에 응원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마음은 앞서지만 실천하기는 힘들다는데.

알아보니, 경기 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학생들의 응원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게시물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는 것은 어떨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지식인도 모르는 체육부 경기일정(!)"

### 반비례

○...요즘 여학생실은 이층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여학생실에 있는 비디오표를 몰래 가져가는 학생들로 인해 도난물을 재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는 재정적인 손해보는 것이라 다른 학생들의 이용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여학생실 지출 증가, 동아인들 양심 지수 감소(!)"

### 외상사절

○...졸업생 중 일부는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증명사진을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일부 4학년 학생들이 졸업앨범 촬영당시 증명사진을 신청했음에도 사진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로 인해 졸준위는 증명사진을 업체에 주문량만큼 신청해 놓고 사진값을 받지 못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졸준위에 내려진 새로운 특명, 미납자를 색출하라(!)"

### 휴게실은 휴가중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은 지하 2층의 교수열람실이라는데.

알아보니 교수들의 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마련된 교수열람실이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수와 강사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한 만큼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교수열람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섬 되나(!)"

### 엘리트프로그램 시행 '인간관계향상' 과목 등

그동안 유보패는 동국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 (Dongguk Career Elite Program)이 다음 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설강좌는 1학기에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인간관계 향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2학기에는 △비즈니스 협상스킬 △갈등관리 △창의력 개발 등 6과목이며 모두 사이버강의로 진행된다.

모든 강의는 자유선택으로 개설되며 이수학점은 과목당 1학점이다.

한편, 신청자격과 수강인원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 패스제·모의토의 성적표 다음달 6일까지 배부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다음달 6일까지 영어패스제와 모의토의 시험 성적표를 배부한다.

성적표는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배부되며 6일 이후에는 해당 교학과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성적표를 찾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며 "기간 내에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실시했던 패스제는 총 42명이 응시해 10명이 통과했으며, 모의토의 시험은 48명이 응시했다.

---

### 원선선거 다음달 11일부터 후보자등록 오는 30일까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가 다음달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며 후보자는 한 학기이상 등록한자로 대학원생 5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재학생증명서와 추천인명부를 학술문화관 1층 대학원 총학생회로 제출하면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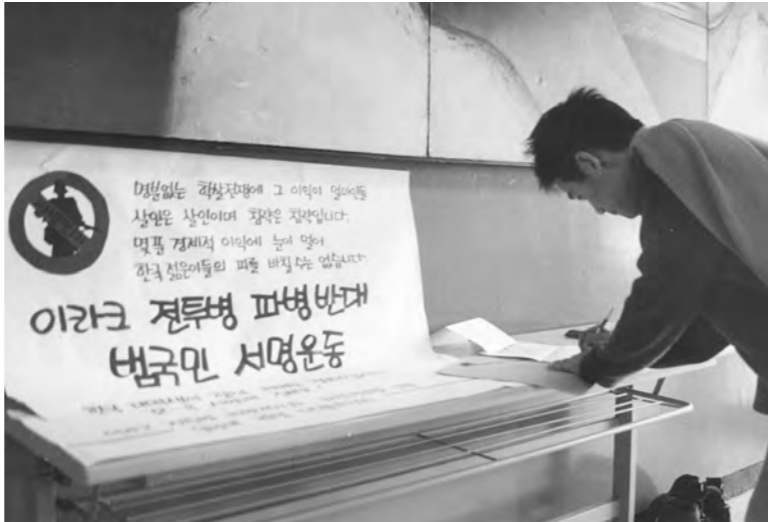
### 대우건설 채용설명회 3학년 실습생모집 설명회

대우건설 채용설명회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중앙당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대우건설 인사관리팀 담당자의 △회사소개 △하반기 직원 채용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생 모집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대우건설 하반기 모집부분은 △건축 △토목 △전기 등이며 응시자격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총학생회가 '이리크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문화관을 제외한 학내 모든 건물에 설치된 무인가판대에서 함께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구도서관 리모델링공사 12월시작

### 업체선정 늦어져 지연 ... 다음해 8월 개관 예정

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돼 다음해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설관리팀은 다음달 3일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해 비품 구입을 끝낸 다음해 8월부터 개관한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업체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사시작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임시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전체 참석자 51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구도서관 2층 불교대 이전과 컴퓨터실 확대가 결정됐다.

총학생회는 안건을 학교측에 전

### 오는 30일 '차 없는 날'

'캠퍼스 차 없는 날'이 오는 30일 실시된다.

적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학교 공용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학내출입이 통제된다.

## 학생회 선거일정 확정

### 오는 30일 후보자 등록·다음달 18일부터 투표

36대 총학생회와 17대 총여학생회 선거가 다음달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총학생회 입후보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료 600인 이상의 재학생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여학생회는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00인 이상의 재학생으로부터 추천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신청서 △희칙 및 시행령 준수 서약서 △소견서 △추천서 등을 오는 30일 오후 12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다음달 중순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총대의원회 의장 선거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공고를 선거 20일전에서 15일전까지 △산전유인물 배포를 4천부에서 3천부로 제한하는 등의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했다.

### 석학초청세미나 열려 '문학사의 시성' 주제

'문학사의 시성'을 주제로 하는 석학초청 세미나가 다음달 3일 오후 2시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문학연구소(소장=김태준·국 어국문학)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

나는 후후하시 노부요시 무사시대 교수가 참석해 △일본 고대문학에서 인간과 문학과의 관계 △현대 일본 문학 사상과 서구 문화 사상의 상대적 시각으로의 파악 △일본 문학의 유·불·도 사상 수용과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 ▶1면에서 이어짐

#### 1. 신규 교양 과목 개설

번호	대학	학과	교과목명	평성영역	개설학기	학점	비고
1	불교대학	불교학과	불교의 생태학의 만남	제6영역	1학기	2학점	불교생태학 관련 과목
2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우리 옛시 이야기	제6영역	1학기	2학점	고전 관련 과목
3		사학과	삼국유사의 이해	제6영역	1학기	2학점	고전 관련 과목
4		중어중문학과	동양의 지혜	제6영역	2학기	2학점	고전 관련 과목
5		독일학과	현대 독일어 회화	제5영역	2학기	3학점	
6		일어일본학과	현대 일본어 회화	제5영역	2학기	3학점	
7		중어중문학과	현대 중국어 회화	제5영역	2학기	3학점	
8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자원, 환경 및 개발	제6영역	2학기	2학점
9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한민족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6영역	1학기	2학점	총학생회 요구 과목
10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소설과 영화의 대화	제6영역	2학기	2학점	총학생회 요구 과목

#### 2. 교양선택 과목 명칭 변경

번호	대학	학과	교과목명		평성영역	개설학기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문과대학	윤리문화학과	현대사회와 동양의 전통가치	현대사회사상	제6영역	2학기		
2		철학과	동양의 생명사상	유·불·도 철학의 이해	제6영역	1학기		
3		철학과	한국의 의의와 사상	한국의 상징과 철학	제6영역	2학기		
4		철학과	종교와 철학	성과 철학	제6영역	1학기		
5		철학과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	과학과 철학	제6영역	1학기		
6		법과대학	법학과	생활과 법률	현대사회와 법	제6영역	1학기	
7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현대정치 이데올로기	한국정치외교의 이해	제6영역	1학기	
8		대학	정치외교학과	현대국가와 민주주의론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제6영역	2학기	
9			수학과	일반수학 I	미적분학 및 연습 I	제4영역	1.2학기	
10			수학과	일반수학 II	미적분학 및 연습 II	제4영역	1.2학기	
11	이과대학	수학과	공학선형대수학	공학수학A	제4영역	1학기		
12		수학과	변환이론	공학수학B	제4영역	2학기		
13		수학과	응용미적분	공학수학C	제4영역	2학기		
14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기전자물리	기초전기전자	제4영역	1학기		
15		생명화학공학과	공학수치해석	수치해석 및 실습	제4영역	1학기		
16	정보산업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 응용	제4영역	1학기		
17	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공학 컴퓨터 응용	비주얼 프로그래밍	제4영역	2학기		
18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성의 역사	성문화의 역사적 이해	제6영역	2학기		
19	예술대학	연극학과	서양음악의 이해	연기와 자기표현	제6영역	1학기		

## 200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공고

- 1. 개설대상 교과목**  
2003학년도 1학기·2학기 개설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 (단, 실험·실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 2.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2003. 12. 15(월) ~ 2004. 1. 12(월)  
- 주 4일 수업 (월·화·목·금요일, 16일간 ~ 단, 12. 25(목)은 24(수)로, 1. 1(목)은 12. 31(수)로 조정)  
- 단, 매주 토요일·일요일, 12월 26(목) 성탄절, 1. 1(목) ~ 2(금) 신청은 수업 없음.  
나. 스기(2박 3일) - 추후 공지
- 3.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7명 이상      나. 교양과목: 10명 이상
- 4. 수강지역 및 신청학점**  
가. 수강지역: 200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학점: 6학점 이내
-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내 포함되며, 장학금 선발 및 학사 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재수강신청일(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서 출력가능)을 반드시 소속학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됨.
- 6. 수강신청**  
가. 기간 : 2003. 11. 4(화) ~ 11. 6(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 서울캠퍼스  
(가) 일시 : 11. 4(화) 오전 09:00 부터 11. 6(목) 24:00까지  
(나) 장소 : 교내 자유 실습실  
▶ 경주캠퍼스  
(가) 일시 : 12. 3(수) ~ 5(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다.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기간에 교내PC실이나 외부에서 접속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3학년도 1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7쪽 참조.
- 7.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취소 및 정정기간(2003. 11. 11(화) ~ 11. 12(수)외에 추가수강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신속히 수강신청.  
(2) 사전에 2003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의 과목 참조와 더불어 수강신청 시 1학기 개설되었던 과목을 조회하여 수강신청.  
(3) 학생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4) 수강신청 시 본인 연락처(TEL,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기 바람.  
마. 수강료 : (1) 개설 교과목 1학점 당(단, P/F 교과목은 시간당) ₩70,000.  
(2)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수강자 자비부담.
- 7. 수강신청 취소 및 정정**  
가. 기간 : 2003. 11. 11(화) ~ 11. 12(수), 2일간  
나. 유의사항  
(1) 최초 수강신청(11. 4~6)결과에 의하여 개설예정교과목을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하십시오 반드시 폐강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및 정정 바람.  
(2) 6학점 이내에서 추가수강신청이 가능함.
- 8. 수강신청 장소**  

건물명	실습실명	개방시간
명진관2층	A2	09:00 - 22:30
동국관M동 1층	Cyberland	09:00 - 22:30
	BSC7	09:00 - 22:30
동국관N동 5층	BSC10	09:00 - 22:30
정보문화관P동 5층	ESC4	09:00 - 22:30
정보문화관P동 2층	ESC5	09:00 - 22:30
학원관 3층	JE	09:00 - 22:30
중앙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	09:00 - 17:00
화해관 2층	CAMPUS#	09:00 - 22:00
- 9.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표표** : 2003. 12. 3(수) 예정
- 10.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3. 11. 17(월) ~ 11. 20(목), 4일간.  
나. 방법 : (1) 고지서 출력: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2) 수납은행 : 제일은행 전 지점  
(수납모임 :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Tel. 02-2260-8990)  
다. 유의사항 : (1)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2)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으므로 교과목 확정공고 (12월 3일 공고 예정)를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어 폐강된 경우 학사지원실(2260-3043)로 문의 바람.



1. 물적 환경
2. 교육과정 I (교양)
3. 교육과정 II (전공)
4. 교수임용 및 처우 I
5. 교수임용 및 처우 II
6. 간담회

# 전공교육강화 '기초부터'

## 학과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커리큘럼 보완돼야

본교는 지난 96년 학부제를 도입한 후부터 전공 부실화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이에 홍기삼 총장은 취임 후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2004년부터 △분과대 △이과대 △생자대 △공과대 △정신대 일부 학과가 학과제전환을 결정하고 전공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했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전공 한 과목 추가개설 △단일전공이수학점 6학점 추가 △최대개설학점 13학점 추가 등이다. 그러나 전공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춘(수학) 이과대 학장은 "선발방식만 바뀌었을 뿐 학부제에서 발생한 전공부실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현 전공부실의 원인으로는 전공기초 부족을 들 수 있다.

▲전공기초 부실 심각=3·4학년 전공의 경우 1·2학년 때에 기본적인 과목을 이수한 후 수강해야하는 강좌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고학년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수련(경영학) 경영대학장은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수과목 수강을 장려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과제 전환 이후 기존 단과대별 지정 교양과목이 없어져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학년 전공수업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개편에서도 1학년 전공의 경우 한 학기에 한 과목이 개설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전공기초의 부실이 전공수업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질' 향상에 대한 검토 필요=학생들이 전공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강좌임에도 수업 내용이 난해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강하지 않고 쉬운 과목만 수강하는 점도 전공부실화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돈

(인철3) 군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필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각 학과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방법은 전공의 부실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에서 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실습교육과목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대와 같이 실습이 병행되고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는

학과제로 전환한 후 교육과정을 개편했지만, 전공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1, 2학년 때에 기본적인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거나, 일부러 쉬운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이 많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공필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기업체에서 직접 실습도 하고 학점도 인정하는 '산학협동'이나, 기초학문의 '실용학문적 커리큘럼' 보완 등도 필요하다.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따라서 전공필수는 시행여부보다 전공필수제가 실시될 당시 제기됐던 일정한 학생수 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수들의 전공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안일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복수전공으로 인한 단일전공이수학점의 축소도 전공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개편에서도 복수전공이수학점은 36학점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본교가 전공심화를 위해 학과제로 전환한 만큼 복수전공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와 연세대 등과 같이 학과제 때부터 복수전공제를 운영해온 대학의 경우 단일전공이수학점을 이수했을 경우에만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신청하는가의 '양' 보다는 교육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

학과제의 경우 기업체에서 직접 실습을 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산학협동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본교는 이러한 산학협동이 전무해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문지향적인 학과도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실용학문 커리큘럼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학과 의 경우 생태불교학, 중무행정 등 응용불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표(불교학) 교수는 "불교계

이제 1천 여일 후엔 건학 1백주년을 맞는다. 때문에 '동국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발전의 근본은 무엇보다 교육·연구분야일 것이다. 이에 본사는 총 6회에 걸쳐 본교의 교육·연구여건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 사설

### 파병결정 철회해야

정부가 지난 18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공식 발표한 이후, 파병 논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극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내려진 추가 파병 결정이 '후유증'을 불러온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벗고 나서며 '무조건 파병'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있다. 여론을 무시한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전투병 파병이 확정된 사실인 양 선부른 보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병 규모나 형태,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 확정까지 국회에 의한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파병 규모가 작을 경우 대미 발언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 근거가 불명확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확대하며 파병 규모를 키우려는가 하면, "특공연대 주축" "특수부대 공병, 보병" 등 전투병을 정해 놓고 '주문'하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파병 일정표를 제시하기도 하며, 파병을 계기로 '제2의 중동 특수'를 노리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도 한다.

하지만 강조하건대, 다시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라크전략연구소가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미군 주도 연합군을 점령군으로 여긴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조직화되는 게릴라 공격에 우리 파병군도 테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이슬람 형제주의'를 표방하는 중동지역과 관계가 악화되면 수출은 물론 원유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각계 시민단체에서는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을 꾸리는 등 파병 반대 움직임도 끊이지 않고 점점 확대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파병한다면 거기에 명분도, 국익도,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끄러움과 어리석음과 아픔만이 남게 될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파병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동국만평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부주관 구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동약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듣는다 - ④ 동아리와 자치모임

# '운동권' 성격 ↓ ... 자유로운 소통문화 모색

학회의 동아리 등 각종 학내 자치모임은 8, 90년대 학생운동의 중요한 기반이였지만, 이들 역시 변화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이에 학회 및 동아리의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당 학생위원회 등 새로운 학내 정치세력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기획을 바탕으로 본교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본교 학생회관 2층에 밀집한 중앙학술동아리들은 한 때 활발한 활동으로 학외에서도 유명했지만, 지금 그들은 스스로 '명백유지가 급한 상태'라고 말한다.

"선배들이 해 왔던 조직적인 '운동'은 이제 힘들다고 봐요. 동아리의 성격도 학술에 더욱 맞춰가고 있고요. 다만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지요."

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2년째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중사연구회 김명화(신방3) 양의 가장 큰 과제는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이다. 적극적으로 동아리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 다른 학술동아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맑스철학연구회는 졸업선배를 제외한 회원이 8명 정도에 그칠 정도다.

학술동아리들은 점차 세미나 등 학술적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민중사연구회에서 "운동권 냄새를 풍기는 '민중'이라는 단어를 떼어버리자"는 논의가 일었던 것은 이 같은 정체성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탈, 문화회 등 공연 및 문예 중앙동아리들은 그나마 공연, 문예 등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에 이들 만큼 '주저않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획일적 문화에 질린다

학회·동아리 쇠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보편 학부제 도입과 개인주의 심화·대중소비문화의 범람 등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부의 획일적인 소통문화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동국문화회 이동철(독문3) 군은 "학생운동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고 정부에 집중포화를 맞았던 97년 이후부터 학생운동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직되고 폐쇄적인 문화를 형성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가르치기식' 소통,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는 억압적 분위기가 형성돼 동아리, 학생회 등 대학 곳곳에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부의 '일상적 파시즘'을 반성하고 다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학회, 동아리들 또한 거의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학회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야간대 학술 소모임 '여명'의 정재승(국제통상2) 회장은 "여명회원들의 정치성향을 묶는 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일부러 다양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신문읽기' 시간을 통해,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생각으로 치부하고 말았던 다소 보수적인 견해를 회원들이 직접 제시하는 빈도가 많아졌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지난 7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보수주의연대' 커뮤니티는 그동안 대학 내에서 소외돼 온 보수를 위한 소통공간을 자발적으로 마련했기에 주목할 만 하다. 커뮤니티를 만든 김 모(교육2) 군은 "보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 이버 공간에서나마 자유롭게 나눠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 정치적 목소리를 가진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교생 개혁당 학생위원들의 모임은 준비하고 있는 이홍범(화공3) 군은 "개혁당의 기치는 생활정치니 만큼, 학생들 일상 속에서 이슈를 찾아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처럼 전국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본교와 성균관대 등 네 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노동해방학생연대' 또한 다음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 '동약의 소통'을 위해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교는 학내·외 시간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논쟁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힘'도 없는 것이겠지요"

송윤경 기자 istU@dongguk.edu

## 건학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오는 2006년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동국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건학 10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의의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동국 100주년을 기념하고 전 동국인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공동의 이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동국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큰 뜻이 있다.
2. 슬로건 내용 가. 건학 100주년 기념 나. 공통된 목표를 향한 공동의 이념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다.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예시) 밝은 동국 맑은 동국
3. 응모 대상 : 전 동국인
4. 접수 처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E-mail) dgu100@dongguk.edu(발신자 및 연락처 명기)
5. 접수 기간 : 2003. 10. 31까지
6. 선정 방법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심사위원회 심의
7. 당선 발표 : 예정 2003. 11. 17(월) 동국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dgu.edu)
8. 시상 가. 대상 : 1명 (50만원 상당) 나. 최우수상 : 1명 (30만원 상당) 다. 우수상 : 1명 (20만원 상당) 단, 심사결과에 따라 부분별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도 있음.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이라크파병 난상토론

# “파병 군인도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닐까”

정부가 지난 18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하다. 그러나 언론들은 실제로 이라크에 파병돼 전쟁을 수행할 군인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이에 지난 9월 제대한 이규성(사회3) 군, 다음해 1월 입대할 예정인 최창민(사회4) 군과 남동생이 현재 군 복무중인 이호선(회계3) 양이 지난 24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라크파병 논란과 파병군인들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 군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니

최창민(이하 민)=나는 내년 1월에 군대에 갈 예정인데,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가는 것이라면 동참할 생각이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식처럼 케릴라 소탕작전 같은 것을 펼쳐야 하는 것이라면 무서울 것 같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후의 정신적 괴로움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호선(이하 선)=동감한다. 동생이 지금 이등병인데, 물론 복수를 얻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부담이 크니까 반대하지만, 우선 동생이 파병된다면 학살자·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호선 (회계3)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규성(이하 성)=직접 파병될 군인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전쟁터를 직접 다녀온 후유증

에 관한 것이나 수위의 정도, 다녀온 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은가.

민=이미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의 군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나라이지만 파병된 군인들은 남미 쪽이나 흑인들이 많다. 특히 남미나 동양계



이규성 (사회3)

군인들 중에는 시민권의 인정을 조건으로 파병 온 군인들도 있다.

결국 미국사회에서도 서민의 자식들이 전쟁터로 나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 서민들의

자식들이 이라크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성=공병쪽으로 파병이 되는 것이라면 수급이 가는 점이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선=이라크에 파병되는 것이 이라크인을 위한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전쟁자체가 명분이 없지 않았는가.

민=파병하는 이유가 이라크의 치안이 불안해서 유지시켜 주기 위함이라면 이라크의 자치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안을 유지하려면 이라크 내에서 자치적으로 경찰정부를 만들면 된다.

성=요즘 새삼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생각해 본다. 그들은 곧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군들의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막상 참전을 해보니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일 것이다. 어쩌면 직접 참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는 아닐까.

## 최근 파병논란을 바라보면



최창민 (사회4)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 일어났다. 미국은 많은 양의 석유를 보유한 이라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선=환경문제나 장기적인 불황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가 간

다. 하지만 경제적인 파장은 복합적인 문제이다. 파병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신용도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국익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 파병결과 얻어진 국익의 결과가 없지 않은가.

민=이라크 전쟁 처리가 힘들수록 한반도에 이익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전쟁을 일으킨

## 내가 대통령이라면

성=현실적으로 누가 미국을 거부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파병할 수밖에 없다면 천천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 가면서 판단할 것이다.

선=국민들의 사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기반으로 성립된 정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한미 외교관계가 정립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미국과 관계된 모든 면에서 자주성을 찾기가 힘들다. APEC회담에서의 말레이시아 총리처럼 우리도 대미존도를 차츰 낮추어 가면서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리=사회부

society@dongguk.edu



기자회견

## 파병저지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준호 군을 만나

# “많은 학생들의 참여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본교에서도 지난 7일부터 '반전 평화화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동국대 학생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준호(경영4) 경영대 학생회장을 만나 대책위 활동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준호(경영4) 군

### - 대책위가 구성된 계기는.

= 지난 4월 1차 파병 때 학내에서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총학생회에서 파병저지 대책위 구성을 제안해 사범대학생회(회장=이승호·수교4), 경영대 학생회,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구자룡·영문4) 등과 동이리 동국문화회, 야간강좌 소모임 '여명'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

### -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 지난 8일과 9일 이라크 파병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20일부터 중도와 동국관 입구 등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이라크 파병반대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3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강의실 방문 등을 통한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도 지속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 - 대책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 모의투표 결과 약 80%의 학생이 파병에 반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파병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 많지 않아 아직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 파병반대 '촛불집회'나 예비군들이 군복을 입고 파병 반대운동을 하는 '예비군 행동의 날' 등과 같이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기엔 활기를 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자치모임과 일반 학생들도 대책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식운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 동약로

### 엇박자 공사



“동아리방에 갈 때마다 먼지 때문에 눈하고 목이 아파.”  
“학생회관 공사를 방학 때 안하고 왜

학생들이 불비는 학기 중에 할까.”

학생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동아리방을 찾는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다.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먼지로 인해 눈병과 호흡기질환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먼지와 소음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화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일부 동아리방의 경우 먼지와 소음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공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붐빌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회관 화장실 보수는 총학생회가 지난 학기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학교측 또한 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நட장대응으로 지난 8월 준군이 돼서야

공사하기로 결정해 9월말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국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와 학생회관 외벽공사와 같이 학생들의 출입이 뜸한 여름방학 중에 진행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총학생회도 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될 것을 알았다면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동아리대표들과 공사시기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 화장실 보수의 필요성을 느꼈던 학생들도 막상 학생회관 출입이 잦은 시기에 한달 이상 공사를 경우라면 방증으로 미루는 것을 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회관 보수작업은 분명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보수공사를 통한 가시적인 복지향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학교, 학생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이주의 시사키워드

# 빈부격차 보여주는 '지니계수'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 6명이 전체의 부 가운데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입니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백분율을 이용해 세계의 빈부차·언어·종교 등을 알아본 책,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우리나라를 토대로 이런 백분율 통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직 같은 통계자료는 없지만, '도시에 사는 집(가구)들을 100개로 축소시킨다면 그 중 열 집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조차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지난 15일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

서에서 우리나라 도시인구 10.1%가 절대빈곤층으로 나타났다. 또한 1과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높은 '지니계수'는 0.358로 더욱 악화됐는데, 보통 0.4부터 재분배정도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단순소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따진 지니계수의 경우 0.65였고 도지는 0.9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지니'가 개발한 지표로 소득 불평등정도를 가늠하는 데 쓰인다. 가로축에는 최고소득층부터 그 인구를 10%씩 잘라 배열하고, 그들의 평균소득을 차례로 세로축에 배열하면 'L'자 모양의 곡선(로렌츠의 곡선)이 생긴다. 이 곡선이 각 축에 달라붙을수록 지니계수가 높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 21C 유령, '다중의 자율' 선언

## 서평

첫 문장을 '지금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아우또노미아라는 유령이' 라고 시작한다면 지나칠까.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혼종적인(hybridity) 사상이 출현하여 '아우또노미아(Autonomia)'라는 이름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낳고 또 사람들의 활력(puissance), 그 생기 가득한 힘들과 결합되어 '운동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유령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 조정환의 말마따나 안또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철학이 넓은 정열적인 사상가는 어떤 이에게는 아나키스트로, 어떤 이에게는 맑스주의자로, 또 어떤 이에게는 테러리스트로 이해되고 있다.

그 어느 표현도 안또니오 네그리의 진면목을 드러내 주지 못한다. 그는 지금 '천 개의 얼굴'로 비쳐진다. '어떤' 거울들이 말이다. 그 거울에는 알튀세르의, 클리프주의, 아니면 윌러스틴이나 아리기와 같은 세계체계론자들이 있다. 한국의 여러 '거울'들은 더욱더 이 노(老) 사상가의 사유를 읽어내는 데 서른다.

올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화여대에서 맑스 코뮤날레가 열렸을 때, 누구도 한국의 구좌파 교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하게 구좌파는 아나키즘을 공격하고, 들뢰즈를 비판하고,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을 비판했다. 마치 안또니오 네그리가 한국에 오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 모두가 '유령'에 대한 제각기의 반응이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일종의 '선언'일까. 이 책의 제목을 단순히 '아우또노미아'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선언'처럼 들린다.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고하는 선언 말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1848년에 맑스가 '선언'을 출간한 일이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이 책의 출간 역시 하나의 '사건'이다. 바로 '아우또노미아'가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또니오 네그리는 그간 조각조각 찢겨진 채 이해되어 왔다. 가령 '네그리는 세계화에 찬성한다'와 같은 방식의 명제로 이해하는 어느 교수처럼 말이다. 몇 가지의 문장을 문맥, 그리고 저자의 사상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해하기. 우리는 그것을 '곡해'라고 한다. 한국의 수용법은 대체로 곡해 그것에 다름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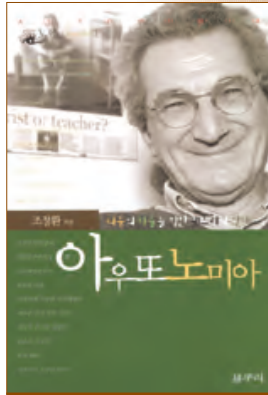
하지만 10여 년이 넘게 아우또노미아 그리고 안또니오 네그리의 사상에 대해 연구해온 저자 조정환이 내놓은 이 책은 네그리의 사상을 그 자체로서 전면적으로 다룬다. 거울을 치우고 그를 그로서 다룬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네그리에 대한 연구서이기도 하면서 아우또노미아 사상 그리고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입문서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우또노미아를 다룬 책이라고 한다.

'다중의 자율'을 향한 네그리의 향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아우또노미아는 저자가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탈리아어로 '자율'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아우또노미아 운동의 내용에 대해 스 가치론, △계급구성론, △사회권성론, △제국론, △국가론, △코뮤니즘론, △조직론 등의 측면에서 다룬다. 최근 들뢰즈, 가타리의 책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면서 스피노자, 네그리, 하트 역시 함께 읽혀지고 있다. 그것은 스피노자-맑스-들뢰즈-가타리의 계열 속에서 네그리를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면 네그리의 특이성보다는 다른 사상이들과의 연속성만이 강조될 위험이 있다. 사실 한국에서 네그리는 아직 제대로 소개·이해조차 되지 못했고, 따라서 오해의 소지는 매우 컸다. 이러한 때에 조정환의 새 책은 네그리의 사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어 반갑다. 이 책의 출간은 한국에서 하나의 사건이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할 때를이다.

한 병준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아우또노미아의 실체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고하다



아우또노미아  
조정환 저  
갈무리 출판사

##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임길진 교수 특별강연 분쟁! 이제 원칙적 협상으로 해결하자



지난 20일 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길진 미시건주립대 교수의 강연은 기존 강연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다. 퀴즈를 내기도 했고 협상이 필요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사탕, 초콜릿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례를 통해, 분쟁과 갈등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옛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기도 했다. 학교 밖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북 부안의 핵폐기장 설치, 대통령 재신임문제 그리고 노사대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긴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근처의 공장형 아파트건립문제로 주민들이 주택공사와 시정에서 시위를 하니 싸움이 없는 곳이 없다.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이해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분쟁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러한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있다. 몇 가지 원칙에 바탕한 협상이 이뤄질 때 싸움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강연의 핵심이다.

우선 우리는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사실 상당수 갈등의 원인은 사람과 문제를 동일시하는데서 출발한다. 상대를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갈등해결은 요원해진다. 따라서 분쟁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정해진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성취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분쟁당사자가 상호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가능한 많이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객관화된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만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고 모두가 이익을 얻는 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와 세계의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지금 보다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상수 (법학)교수

## 사상가 이야기

우메 겐지로(1860~1910)는

1860년 7월 24일 일본의 풍광수려한 시마네 현에서 출생했고, 1880년에 현 도쿄대학 법학부에 입학해 1884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1885년 10월 6일 약관 25세에 도쿄대학 법학부교수가 되고, 같은 해 12월 29일에 프랑스 리용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리용대학에서는 1889년 '화해론'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최우등 박사논문으로 리용시의 베르메이유상을 수상)하고, 1890년 귀국하여 도쿄대학법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 후 근대국가의 기초가 되는 입법작업에 관여하면서 주로 민법의 기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때 만들어진 민법(1898년 시행됨)은 아직도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다. 민법의 기초만이 아니고, 민법 참고서의 간행과 민법의 보급·계몽에 노력하여 '일본 민법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우메는 1906년부터 암울한 역사의 초창기인 한국에서도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 침략의 앞잡이로 알려져 있는 이또히로부미가 우메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자신이 통감으로 있는 한국정부의 법률고문으로 초빙한 것이다. 1906년부터 우메는 여류법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이에 입각한 한국 독자의 입법을 기초하려고

했다.

그는 한일합방에 반대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서서, 한국 독자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입법작업을 했다. 하지만 우메가 만든 법안은 한일합방 후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강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라져 버리게 된다. 단, 토지조사사업의 근거가 된 토지건물증명규칙을 우메가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일본인의 토지취득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메는 1910년 한일합방 직전에 서울 체류 중 장티푸스에 걸려 1910년 8월 25일 50세의 짧은 나이에 이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우메는 일본 민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편, 한국의 법에도 많은 영향을 남겨 놓았다. 그 주된 것이 현대법원의 모체인 조선고등법원의 창설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우리로서는 매우 아픈 기억이지만, 한 일본인이 순수한 법학자로서 당시의 서울에서 한국의 법과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애썼다는 점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 민법학자
- 박사학위논문 '화해론', 리용시 베르메이유상 수상



## 학술단신

### 2003 한·독 국제학술회의 열려 본교 · 국립슈파이어행정대학원 주최

본교가 독일국립슈파이어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 'DAAD-Seminar 2003 in Seoul'이 '국가적 지방 분권화와 사회적 자기 책임성'이란 주제로 지난 23일부터 3일간 본교에서 열렸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전문가 세미나로 다양한 세미나실에서, 마지막 날은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학술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통제로서의 국가발전과 행정혁신'이란 주제로 진행된 첫째 날은 심익섭(행정학) 교수, 피차스 교수, 김해룡(계명대 법학) 교수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뤄졌다.

둘째 날은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란 주제로 계바우어(의회 사무처장) 교수, 한부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등이 발제했고, '한국과 독일의 사회안전망과 경찰체계분권화 비교'라는 주제로는 임준태(경찰행정학) 교수, 권덕철(보건복지부 과장, 김상겸(법학) 교수 등이 발제했다.

마지막 날에는 '실천적 지방 분권화를 위한 신행정수도의 추구'라는 주제 아래 김병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기초강연과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피차스 교수, 계바우어 교수 등의 발제와 박대운(충북대 행정학) 교수, 정범부 민주당 국회의원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정학) 교수, 정범부 민주당 국회의원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 한국한시대관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종찬(국어국문학) 명예교수가 저술한 '한국한시대관(韓國漢時大觀)' 13권, 14권, 15권이 대한민국의학술원에서 선정한 2003년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한국한시대관'은 우리나라의 역대 한시들을 모두 해 연차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상대시로부터 시작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시가까지 전 30권으로 기획된 것이며, 현재 15권까지 발행됐다.

한편 한국한시대관 1~5권은 1999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6~12권은 2001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 교수동정

△김진선(회계학)=LA동국로얄유니버시티 총장으로 발령. △손재현(체육교육)=순재현무용단, 지난 23일부터 2일간 창작발레 '연화' 공연. △오원배(미술학)=10월 23일부터 11일간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

# 당신의 지성 숨긴채 굳히기에는 아깝습니다

## 학술상 · 문학상 작품 모집

### 제41회 동대 학술상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70만원, 가작 1명 5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5. 제 출 :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까지  
방문 · 직접 · 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3년 11월 17일자 동대신문
7. 문 의 : (02) 2260-3491~2

### 제18회 동대 문학상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 · 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 · 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 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5. 제 출 :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까지  
방문 · 직접 · 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3년 11월 17일자 동대신문
7. 문 의 : (02) 2260-3491~2

## 2003학년도 교육여건 설문조사 경품 당첨자 공고

본교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재학생들의 의견과 욕구를 조사·연구하여, 교육정책 방향 설정 및 교육여건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03학년도 교육여건 온라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진솔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학교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1. 경품 당첨자 선발 및 시상 내역  
가. 행선상 : MP3 1개씩 3명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3명 선발  
나. 해화상 : 문화상품권 1만원권 2매씩 101명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아래의 순서(25의 공배수)로 응답한 학생 101명 (1, 25, 50, 75, 100, 125, ..... 마지막응답자, 인원부족시 2, 3, 4, 5, 6, ..... 연번순으로 총 101명 선발)  
다. 통곡상 : 학교 홍보용 고급 우산 10명  
- 선발방법 및 인원 : 설문 5개 영역에 모두 응답한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10명 선발
2. 경품 당첨자 명단 (학년, 이름)  
1. 명진상  
19914526 김시내 20311998 김은희 20214216 성지영 20213617 이인화 20313398 조하얀  
20117491 이용현 20110405 김은주 20212316 송병진 20017869 이재완 20212325 최태환  
20110727 조유미 20013541 김정연 19712962 손윤식 19910197 이재화 20112185 최원환  
20110748 김진희 20110999 신순우 19712205 이정환 19810109 최원우  
20312843 김철호 20110298 신유미 19711523 이지철 20213177 최원환  
19913279 김하린 19711402 안병수 20210910 이진희 20117183 최혜선  
20310262 김호범 20213515 안수진 19911983 임선영 20311364 한세룡  
19814147 고준석 20112785 내혜정 19914010 안현정 20312451 임용범 20011591 허 철  
20110368 김경연 19612043 노우상 20312517 여동민 20312586 장다정 20210451 홍상민  
19914512 권희준 19712925 민형도 19915974 오지선 19810944 장광호 20010800 장소영  
20012131 김지연 20213458 오재현 20310320 정다운 20310320 정다운 20111311 김유아  
20214576 김정민 20311104 문형원 20312839 유양수 19911172 정 신 19911172 정 신  
20312007 김광수 20313558 민지훈 20011444 윤윤규 20211084 정태민 20212706 김효진  
20310227 김광진 20310900 박병희 20311692 이관용 19811899 조광재 20313500 서원현  
20117220 김상문 20213771 박준미 20312271 이미화 19711478 조남기 20214020 원진국  
19710956 김상문 20111781 박정미 20212185 이미화 19914803 조민우 20113531 이상정  
20313956 김재민 20210654 박정우 20213844 이민희 20213867 조민정 20310356 이광진  
20310239 김아름 20011764 박현우 19812248 이상수 20012040 조승기 19910972 임지선  
20112894 김명우 20313069 박종우 20311623 이승호 20210278 조아라 20310944 최재영  
20311617 김용석 19710346 배성용 19913193 이안나 20111600 조원희 19712437 최진욱  
19912517 김 원 19712257 백상수 20212811 이우진 20214021 조은아
3. 경품 배부 안내  
가. 경품 배부기간 : 2003. 10. 21(화) ~ 10. 28(화) 17:00까지 (\*기간 접수)  
나. 경품 배부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  
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지참

소나기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 군대에 있을 때 노무현 찍었다. 이회창 보다 좋으니 욕하지 마라 △재신임 해서 노무현 혼자 파병 보내자. 위험이자 정치도박이다. △내각제와 대통령제 차이점은 뭐가? 현재 노무현 정권은 내각제 보다 못한 권력이다. 재신임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파이팅!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비주류라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더이상 비주류가 아닌 주류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행위는 피해의식의 소산이자 아집일 뿐이다. △오죽하면 그럴까? 대통령 직책이 부담되기는 되나보다. 진정한 참모들이 없기 때문! 부디 경제에 악영향이 없기를 바란다.

△술적회 나라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 아무튼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젠 좀 믿어주세요. 조금만 잘못했어도 교체해버리고... 노대통령 믿습니다. 그 분인들 즐겁겠습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대통령 안될사람을 뽑아놓았으니 비실비실하지. 재신임 하는 건 좋은데, 새로 대통령 뽑을 사람은 없나?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라님인데... 믿고 따라야죠. 고건 총리보다야, 한나라당 보다야 낫죠. △극단적인 조치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니 믿고 따라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

노무현 대통령 파이팅!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대통령님! 김대중-김영삼과 손 꼭오십시오!

△장기관에서 훈수 둔다고 장기관 대통령이 하는 격 △정수가 칼을 내던지고 너희들이 장군하라고 하는 격 △육박기 싫어서... 불안한 마음에 하는 것이겠지. 하든지 말든지, 돈이 아깝다.

얼마 전 학생복지와 행정서비스에 높은 평가를 받은 한 사립대학교가 교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관계자들은 특정한 사적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전체교비 중에서 편의상 항목만 이리 저리 바꿔 썼을 뿐이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대학으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서 현재 사립대학들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원칙에 가장 충실할 것 같았던 대학마저 법규를 예사로 무시한다면 다른 대학은 불문가지이다. 회계 장부를 이리 저리 꺾어 맞추는 것이 관행이라면 교육부의 회계 감사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닌가. 즉 내부에서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에는 교육부의 감사로는 교비유용과 같은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아닌가.

한편 서울 소재 모 여자대학교에서는 교수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총장 선거에 참여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총장을 뽑았으나 재단 이사회에서 이를 무시하고 후보에도 없던 이를 신입총장으로 임명했다가 교수와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두 달만에 총장이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사회의 횡포가 문제이긴 하지만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자체를 대단히 부러워하는 대학들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총장을 대학 구성원이 선출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이사장은 설립자의 부인, 총장은 아들이 하는 식'의 강력한 족벌체제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비가 재단의 재산 불리기에 불법 전용되고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학의 비리는 수십 년을 묵은 것이다. 이것이 근년 들어 진전된 민주화 덕분에 그동안 눌러 왔던 것들이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관자문기구를 신설하였다. 내년에는 아예 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 한다.



논단

정용구 안산공과대 교양과 교수

사학분쟁 '고리' 끊으려면

강력히 반발하여 두 달만에 총장이 사퇴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사회의 횡포가 문제이긴 하지만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는 자체를 대단히 부러워하는 대학들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총장을 대학 구성원이 선출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이사장은 설립자의 부인, 총장은 아들이 하는 식'의 강력한 족벌체제에서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비가 재단의 재산 불리기에 불법 전용되고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학의 비리는 수십 년을 묵은 것이다. 이것이 근년 들어 진전된 민주화 덕분에 그동안 눌러 왔던 것들이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분규가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던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관자문기구를 신설하였다. 내년에는 아예 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라 한다.

관중 즐겁게 하는 과학, 미술

오늘날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듯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한때 미술은 사제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게 하는 도구였는데 일 예로 성경에서 나오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구절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 미술은 조화의 대상으로 타락해 미술사라는 직업이 낄길 뻔한 상황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중세 미술이 조롱받은 요인은 대중이 미술과 방법의 차이를 이해 못한 데 있다. 방법은 영혼의 도움으로 기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힘이고 미술은

이 힘을 쓰는 것을 부정한다. 중세사람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미술사를 마녀로 오인한 것이다. 미술사는 관중을 공공연하게 속이기 위해 과학에 대한 지식, 특수한 장비 그리고 각종 기술 등을 사용한다. 그들은 배우이다. 관중들의 관심과 감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각종 무대매너, 표정연기, 완벽한 기만술 등을 동원한다. 미술사가 추구하는 목적은 오로지 관중을 즐겁게 해 주는 데 있을 뿐이다. 괴테는 '어느 예술이든 가장 첨예한 문제는 더 높은 현실성을 가진 환상을 창조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미술은 어떤 예술보다 더 선명하고 훌륭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상혁(경명대 광고)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 - '양자역학' 물리학과 남궁 옥 교수

지난 9월 본교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좋은 강의' 원고 모집에 선정된 여섯 편의 글을 차례로 싣는다. 편집자

### 일방적 방식 벗어나 함께 고민하는 강의

지난 4년, 아니 7년 간 약 140여 학점에 달하는 수업을 들어온 학교의 만행으로서, 몇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명강의'를 추천하고자 한다. 과목명은 물리학과 남궁 옥 교수님의 '양자역학'이다. 왜 내가 남궁 옥 교수님의 제목부터가 거북스런 '양자역학'을, 전공학생을 비롯한 1만 2천 동국인 전체에게 권유를 넘어선 강요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지금부터 하고자 한다.

첫째,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뉴턴의 만류인력'이 '우주 만물의 근원을 설명' 하듯이 '양자물리학'이야말로 태초부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존재한다는 것은 복잡한 수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둘째, 학생의 학구열을 조율하는 교수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오전 졸음도 달아날 정도의 수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1시간 30분 내내 열변을 토해내시는 데에는 어떤 수강생도 집중을 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학생의 발상을 존중해주며, 모든 질문에 원인과 결과를 덧붙여 설명해 주신다. 교수님께선 강의 중간에 지나온 과정들을 수 차례 피드백을 통해 재확인, 체크하시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 "귀찮은 것은 순간이지만, 지식의 누리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게 된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려 본다.

넷째, 강의의 시작과 함께 지난 시간의 복습을 정리해 주신다.

다섯째, 전달위주의 강의 방식을 탈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질문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야말로 성공적인 교수법의 지름길이지 아니겠는가.

나는 이러한 교수님이 우리학교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져본다. 그러한 만큼 우리 동국인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훌륭한 진리들을 나누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글을 써본다.

김병민 (이과대 물리4)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담배를 핀다는 것 - 장미애 - substory@hanmail.net

###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 이사회 관련기사 대안 제시 아쉬워 건학 100주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 이끌어야

지난호 동대신문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의 동국학원 이사진 개편에 대한 내용을 1면 톱으로 기사화 했다. 항상 학생회 혹은 일반학생들 행사위주의 1면 톱기사가 익숙해진 나로서는 다른 때와 달리 긴장하면서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선임과 관련된 동국학원 정관 및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상무적인 당부의 말로 글을 마무리 한 것이 아쉽다. 1면 톱기사의 비중을 부여하였다면 타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사선임방식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2면과 3면의 인터뷰기사 및 하단광고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학 100주년'이라는 소중한 어휘가 자칫 학생들의 관심 밖에서 단순 구호성으로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든다. 건학 100주년은 재학생들이 누구보다도 감격스럽고 당당하게 맞이하여야 할 축제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어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주제기획 6면과 7면에는 다소 파격적인 키스사진과 함께 캠퍼스 연애풍속이 넓게 자리잡고 있다.

주제 기획을 읽으면서 열악한 취재 환경 속에서도 대학언론의 정체성을 끝까지 부여 잡아야 하는 기자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처절하게 무릎 꿇고 구애를 하는 듯하여 애뜻한 맘까지 든다.

그럼에도 한정된 지면 하에 교육연구어건에 대한 기획기사, 학생들의 정의감에 찬 발언, 매체비평은 물론 교수의 학술 기고문에서 정감 어린 수필까지 기사화한 것은 동대신문이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독자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기에 칭찬하고 싶다.

김규환 (직원노조 사무국장)

###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통, 10월 8일 생일 축하한다. -맛  
△10월 25일 생일 축하해. -석  
△10월 22일 영민형 생일 축하해요. -press  
△동대캠카 전자과 조용훈 오빠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minam  
-club 훈 팬클럽  
△해력, 선형 PC방에 맞아 고생 많았다. 탈출 축하하오 -니오  
△수희언니, 화영오빠 500일을 축하! -시미가  
△동주야, 생일축하해! 늘 웃음 가득한 네가 되기를. -A&K일동  
△오야~!! 알바 구한거 축하한다. 얼른 벌어서 돈 갚아라 -KOO일동  
△희순, 태평 100일 축하해. -연이가  
△10월 27일 생일 축하.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남은 새내기 시절 즐겁게 보내길 -법웅대 선배

열심히 합니다

△민주야 공부 열심히 해 -장선이  
△소진이 재인이 열심히, 은정이 상훈이 forever  
-행정학과 2학년 일동  
△사법 시험한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탈 30, 31일 공연 최선을 다해 멋진 공연 만듭시다. 파병반대!  
-minam  
△더노세 공연준비 열심히 합니다!  
△신문방송학과 학우 여러분, 남은 시험도 잘 보세요.  
△불쌍한 행정학과 O.O학번 박인수 힘내라~  
-yajang  
△용,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  
-A&K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은영선배! 행사 준비하느라 진짜 수고했어. 내 맘 알죠? -꼬맹이  
△용민형 시험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시험기간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민인의 연인 휘자 형님. 졸업 연

그리고...

△태진이 미안했다. -민주, 장선  
△문주형 장학금 타면 같이 놀아요. △승환이처럼 준표 너도 인간이 되려라.  
△박영심 사랑해 -99기철  
△혜화야, 밥사라.  
△영동 03 한해정!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진자로 -Jr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0/27)	김치수제비 (1300) 탕수육 (1500) 갈비경단 (1500)	참치김치찌개 (1500) 생선가스 (1500) 산채비빔밥 (1500)	된장찌개 (3000) 만두전골 (3200) 쭈꾸미볶음 (3200)
화 (10/28)	소고기해장국 (1500) 쭈꾸미제육볶음 (1800) 치킨가스 (1500)	영양갈비탕 (2000) 집밥 (1500) 미트볼덮밥 (1500)	된장찌개 (3000) 콩비지찌개 (3200) 양장피집채 (3500)
수 (10/29)	설렁탕 (1500) 치킨볶음밥 (1500) 비빔밥 (1500)	닭곰탕 (1500) 오징어덮밥 (1500) 김치볶음밥 (1500)	된장찌개 (3000) 조기찌개 (3200) 닭갈비 (3200)
목 (10/30)	햄스터찌개 (1500) 떡볶고기 (1800) 감자탕 (1500)	짬뽕국밥 (1500) 제육덮밥 (1500) 소고기구국 (1500)	된장찌개 (3000) 완자전골 (3200) 덕덕구이 (3500)
금 (10/31)	닭개장 (1500) 쇠고기해리이스 (1500) 리조육 (1500)	건새우이육국 (1500) 모듬볶음밥 (1500) 순대볶음 (1500)	된장찌개 (3000) 부대찌개 (3200) 해물덮밥 (3500)

■ 금주의 추천메뉴 ■  
산채비빔밥 (상록원 월요일 석식)  
스님들이 산나물을 뜯어다 옛날부터 드시던 것이 산채비빔밥이다. 사람의 혈류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나물을 푸짐하고 다양하게 넣어 향토적 입맛에 맞게 준비했다.  
안순실 (상록원식당 영양사)

2003 동연제

다양한 빛깔의 열정 캠퍼스에 칠하기

애국 - 호우회



평소 애국선열이나 국가 유공자, 독립투사 등에 관한 토론회·봉사활동 등을 하는 호우회는 이번 동연제를 맞아 '김구 사진전'을 열었다.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수집한 사진 10여 점을 다량관 앞에 전시했다. 이외에도 학생들도 참여 가능한 퀴즈대회, '독립투사 열정뽀기' 스티커 설문 등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호우회 회장 이진익(경영2) 군은 "준비했던 것보다 큰 규모로 사진전을 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어렵게만 느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환호 - 뭉개구름



동연제 폐막식에서 창작음악 동아리 '뭉개구름'의 공연은 현장의 열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했다.

팝송 'Everywhere'로 시작된 공연은 평소 쉽게 따라 부르는 대중가요인 박마마의 '거부', 이효리의 '10minutes' 등을 선보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운도현 밴드의 노래를 메들리로 선보인 고학년 학생들은 기성 가수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뭉개구름 회장 유창민(컴공2) 군은 "동연제의 성격상 일반 학생들도 쉽게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창작곡보다는 가요 위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허설 부족과 준비 소홀로 곡 중간의 공백이 길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성 - 자연과학연구회



육안으로도 밝게 빛나는 화성을 볼 수 있었던 지난 8월 이후, 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자연과학연구회'가 동연제를 맞아 개최한 '화성에 대한 공개 세미나'는 일반 학생들이 보다 더 친숙하게 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에서 마련됐다.

지난 24일 6시 원흥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화성에 대한 설명·화성탐사·화성 문명설과 생명체 존재 여부·화성의 지구 대체 가능성 여부 등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회원들이 한달여간 준비한 노력에 비해, 홍보 부족으로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비 - MASIC



올해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은 미술동아리 'MASIC'이 동연제를 맞아 2회 정기공연 'MASIC Magic Concert'를 열었다. 지난 23일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2시간 반 동안 MASIC내 10여명 미술사들의 화려한 미술쇼가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미술사 혼자 선보이는 행사 외에도 즉석에서 관객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많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미술사들의 재치, 순발력, 능숙한 공연진행 등은 긴 공연시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했다. MASIC 회장 윤근영(일문2) 군은 "동연제 기간에 열려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리=문화부 culture@dongguk.edu

문화일기

내 생애 최고의 ○○

여행지 - '태백산맥'의 정취 느낄 수 있는 별교 가슴에 새겨



한만수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내 생애 최고의 여행지? 집사람이 이 글을 읽을 확률이 매우 낮을 터이니 좀 솔직해지자. 아내가 아닌 한 여인을, 그것도 유부녀를 만나고 짝사랑에 안타까워하던 20여년 전의 그 곳을 손꼽아야 하겠다.

유난히 큰 가슴 때문에 고민하고 봉숭아꽃과 치자꽃을 좋아하던 여인, '홀깃홀깃한 겨울 꼬막맛'에 비유되던 여인, 바로 빨치산 강도식의 아내 외서택을 나는 짝사랑했었다.

그러니 내 생애 최고의 여행지는 바로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전남 별교이다.

내가 최근에 펴낸 '태백산맥 문학기행'(해남출판사)이라는 책에서 주로 다룬 것도 바로 별교이다. 이곳이 왜 최고의 여행지냐고? '태백산맥'을 읽지 않은 자는 모른다. 그분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말라.

80년대 작품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별교를 정작 실제로 가본 것은 1995년이었다. 조정래 선생과 함께 찾아가 별교의 도로표지판에서 '외서'라는 지명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외서택의 친정 외서나 그기가 살던 회정리 뿐이 아니다. 별교는 운동 '태백산맥'이다. 정하섭이 순천에서 별교로 숨어들던 진트재, 소화가 그를 감춰주었던 현부지네 별장, 빈둥들이 개폐지 취급을 받으면서 쌓아올린 중도방죽, 염상구의 아지트였던 청년단, 그리고 아, 울어 해방구.

별교에는 그 무대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도로표지판을 하나하나가 작품을 연상시키며, 심지어는 카페나 선술집 이름조차도 '태백산맥'이다.

별교에서 '태백산맥'은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50여년 전의 작품 무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까닭은 물론 근대화에 소외된 '낙후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때나 이제나 별교는 중앙에서 너무나도 먼 곳. 우리 생명의 젖줄이면서 늘 수탈 당해야 했던 우리 농촌의 상징이다.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는 농업개방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퇴로가 없다. 우리의 외서택은 오늘도 농약중독에 시달리면서 밭고랑에 앞드러졌다. 별교는 '최고의 절망'이 되고 말 것인가.

동연제 평가

폐막식 '풍성' 동아리·학생 참여 '셀링'

2003 동연제가 지난 22일부터 3일동안 동아리 곳곳에서 열렸다. 19대 동아리연합회(회장=권준일·토목3, 이하 동연)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야(夜)·모도여!'라는 모토 아래 진행됐다.

올해 동연제는 각 동아리들이 분과별로 전시·공연 등을 통해 자신들의 끼와 성과물을 선보였다. 하지만 폐막식이 진행된 24일을 제외하고는 행사 일정이 거의 정무했으며 일부 동아리들의 홍보활동에 그쳤다.

학생들의 참여를 저조는 안내 책자·포스터 등을 통해 비교적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였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다. 호우회의 경우 김구 사진전과 함께 퀴즈대회 등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의 참여 부족으로 대폭 축소해야 했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과 맞물려 학내에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동아리들의 참여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았다. 대다수의 동아리들이 정기 행사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연제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특성 부회장 박보현(전기2) 군은 "불참하는 동아리가 많아 참여하는 동아리조차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안내 책자에 나온 일정과 실제

행사와 차이가 벌어져 혼란을 빚기도 했다. 동굴탐험 연구회·기우회 등이 속한 체교분과의 경우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동연 회장 권준일 군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는데 학생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동연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부뿐만 아니라 각 동아리 내부에서 동연제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동

연제가 언제인지도 몰랐다"는 일부 동아리 회장들의 말은 이를 실감케 했다.

한편, 폐막식은 예년에 비해 풍성하게 마련됐다. OPUS·현여울·퍼어리스 등 다양한 색깔의 동아리와 가수 전인권 씨의 열정적인 공연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늦춰지는 것이 당연시되던 공연 시간도 원래 계획에 맞추어 진행됐다. 하지만 공연분과 이외의 동아리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동연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어주는 굽직한 학내 문화행사이다. 그러나 대학 문화 침체와 동아리 위기라는 장애물 극복은, 동연과의 의견조율을 통한 동아리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단신

인디다큐 페스티벌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영화제 '인디다큐 페스티벌2003'이 오는 30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작품들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걸작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올해의 초점'에는 개작작인 '플래시백'을 비롯해 다섯 편의 영화가 초청됐다. 또한 미국 공영방송 피비에스의 정규프로그램 P.O.V 특별전에서 상영되는 7편의 작품은 독립다큐와 공영방송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폐막작으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을 다룬 '송환'이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334-3166

서울공연예술제

'2003 서울공연예술제'가 다음달 2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

'공연예술! 그 무한한 공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국립극장·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대학로 소극장 및 거리 곳곳에서 진행된다.

또한 부문은 공식초청작품·젊은연극초대전·해외초청작품 등으로 나뉘어진 연극과 국내의 공식초청작품 및 자유참가작 등이 있는 무용으로 나뉜다.

현재 연극부분 공식초청작 '졸업'이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중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자유참가작을 만날 수 있다. 문의 3673-2561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공학법제

연기영 외저 / 신국판 / 457면 / 14,000원

이 책은 대학에 개설된 『공학법제』를 비롯하여 과학 기술관계법의 수강생들에게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황태연·박명호 공저 / 4·6배판 / 355면 / 20,000원

종교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해 불교를 보편적 조망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신 경제법론

김영주·김상결 공저 / 4·6배판 / 715면 / 25,000원

사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경제법과 달리 국가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공법적 시각의 새로운 경제법 도서



영국 낭만주의 문학 연구

허천택 저 / 622면 / 20,000원

이 책은 영문학의 꽃인 영국 낭만주의문학의 연구서로서 평생을 영국 낭만주의 문학연구로 일관한 저자의 위즈위스에 관한 논문 14편을 포함하여 1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전자화폐(개정판)

송유진·주재훈 공저 / 신국판 / 335면 / 12,000원

본서는 컴퓨터학과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 시스템 중의 하나인 전자화폐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



종교사회복지

이혜숙 편저 / 신국판 / 431면 / 16,000원

본서의 제1부와 제3부에서는 종교사회복지의 보편적인 문제들과 전망을 다루고, 제2부에서는 개별교단들의 사회사업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말미에는 주요 교단들의 사회 복지시설 주소록을 첨부하였다.



최신 생명과학(개정판)

김주필 저 / 신국판 / 232면 / 8,000원

과거에는 '일반생물학'으로 생물학 전반에 걸쳐 개론적으로 배워 오던 것을 최근의 연구경향에 맞춰 식물부분을 제외하고 Topic Subject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개론적으로 정리.



한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사

조병찬 저 / 신국판 / 307면 / 15,000원

저자는 우리나라 농수산물도매시장정책의 역사에서 무능, 무책임성과 최근 공영도매시장을 위탁시장화하려는 농안법 개정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반세기의 우리나라 농수산물도매시장사의 역사를 다시쓰게 된 것.



지형학

김주환 저 / 4·6배판 / 1,087면 / 55,000원

책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구조지형학과 관련된 분야를, 후반부에서는 기후지형학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를 정리하였다.

### 매체비평

#### 라디오 편

2003년 가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기존 틀 벗어난 대중적인 시사매체로”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MBC라디오 프로그램 '2003년가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김미화 씨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적잖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꼈다. 우선 반가웠던 이유는 그녀가 필자가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고 주목해왔던 개그우먼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코미디프로그램에서 맡은 캐릭터는 그 이전의 코미디물에서 여자 희극인들이 맡고있던 캐릭터와는 차별화된 적극적이고 역동성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코미디 여성 캐릭터 변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서 자신의 개인사적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환치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화예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들이 그녀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 점과 더불어 신선한 기대감을 줬던 또 한가지 이유는 어렵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을 여성 연예인, 그것도 개그우먼에게 맡겼다는

점이야.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계의 관행을 보자면 이는 매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은연 중에 희극인들을 단지 우스꽝스런 것이나 하는 어릿광대로 여기는 정서가 남아 있고 정치, 사회의 문제는 남자의 것으로 여기는 문화, 즉 양복 입고 베타이 맨 남자들이나 사회의 진지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시각에 대한 도전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만한 변화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 프로그램의 메인 연출자인 정찬형 PD는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미화 씨가 이해하기 전에는 관련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어렵지 않게 가졌다는 발언이기도 했지만 김미화 씨를 작가와 PD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는 앵무새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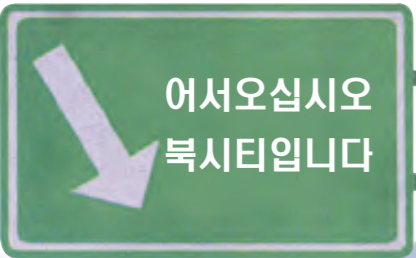
이런 기대와 신선한 충격을 주며 시작된 프로그램은 경제, 사회적 이슈, 대중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고정 게스트들과 김미화 씨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방송이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방송의 성패를 평가하기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선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편향되어 있다' '어설프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선하다고 보는 측면은 일단 방송의 내용과 게스트의 성향이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김미화 씨가 자신의 주관을 갖고 하는 발언들이 과거 연예인들을 단지 '얼굴 마담'으로 앞세웠던 프로그램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사회적,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 언론의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매체의 공공성이 단지 무색무취함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란 점을 고려하면 단지 그녀가 어떤 정치적 입장(예를 들면 파병반대 같은)을 갖고 있다고 자질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앞에도 언급했듯이 아직 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 프로그램의 성패는 시사문제의 진지함과 복잡함을 어떻게 김미화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대중성 속에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말고 진지함과 대중성의 결합이란 숙제를 풀어 가길 바란다.

염신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



# 자연과 문화 아우른 책의 도시 속으로

## 출판문화 관련업체 한 자리에 모인 문화·생태도시

멀티플렉스 극장은 영화, 식사, 오락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극장계의 변화를 불러왔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출판멀티플렉스 도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복시티)'가 바로 그것이다.

### 산업≤문화

복시티는 출판사, 인쇄소, 물류센터, 출판물소광센터 등 출판 관련 활동을 하는 600여개 업체들이 한 곳에 들어선 산업단지를 도시 개념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는 초기부터 출판사 등 민간조직의 제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도시계획가·건축가 등이 '위대한 계약서'라는 합의안에 근거해 입주가 이루어져 여느 산업도시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단절돼 있던 독자와의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도 복시티가 기대하는 바 중 하나다. 책 관련 행

사, 출판사 일부공간의 갤러리 활용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열린 문화의 장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현재 입주한 출판사 '한길사'의 경우 건물 안에 갤러리·아트센터를 마련해 독자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다.

### 숨쉬는 생태도시

한편 복시티는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꿈의 도시'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거리의 가로수는 맞은편에 위치한 심학산에서 자생하는 나무로 세웠고, 도시 가운데에는 샛강이 흐른다.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된 미학적 건물들은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에너지도 태양열·바람을 이용한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 길을 따로 냈을 정도이니 그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출판업무 외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물들도 눈에 띈다.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출판문화교육센터는 이벤트홀과 대회의실을 갖춰 출판인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완공되는 전시·정보지원센터는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쓰일 예정

이어서 국제적으로 복시티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몇몇 문제점들은 완공까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우선 열린 도시로의 자리 매김을 꼽을 수 있다. 지리적 특성상 폐쇄도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성화를 살려주는 책 관련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중교통 시설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터놓기는 했지만 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샛강은 생태도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기에 충분하다. 조성한 생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제 시작이다

출판계 성장 뿐 아니라 문화도시와 생태도시의 접목으로 새로운 건축에 대한 열정을 형성했다고 평가받는 복시티는 이제 막 출발선에 들어섰다. 그 시작 자체로 반은 온 셈이니 앞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해 문화도시의 이정표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창작과 비평사' 신수진 씨를 만나

# "네트워크 구성으로 업무 효율"



현재 복시티에는 10여개의 건물에 출판사와 인쇄소 등이 입주해 있다. 이에 지난 6월 비교적 일찍 이곳에 입주한 출판사 '창작과 비평사'의 출판부 차장 신수진 씨를 만나 입주 후 생활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 입주 후 좋은 점은.

= 먼저 서울의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좋다. 이곳은 잘 보전된 주변환경 덕분에 새소리가 들리는 쾌적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입주해 있는 인쇄소·물류창고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업무면에서도 효율적이다.

### -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식당·약국·상가 등 편의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소비자인 서울과 멀리 떨어진 파주에 위치한 것에 따른 불편이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출력실과 디자인 사무실이 아직 서울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또한 작가들도 주로 서울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연계작업을 위한 외근에 대한 부담이 있다.

### - 복시티 조성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생각은.

= 앞으로 이곳은 많은 출판사의 입주, 인쇄단지 조성, 출판 도매상 '복센'의 설립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출판업체간의 정보 공유 및 인접 네트워크 구성으로 활발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특별 사진 전시회 등 독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독자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인)  
mh705@dongguk.edu

## 현장출동! 복시티에 가다

# 친환경적 도시 외형 이색

# 대중교통 부재는 NG!



전철, 좌석 버스, 빌러 탄 자가용, 시내 버스... 산골 오지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나 거칠 법한 긴 여정을 겪고 나서야 도착한 출판문화도시 복시티.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곳은 아직 너무나 '떨었다'.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로 가득찬 도시를 상상하며 찾아간 복시티에서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아닌 공사 현장의 희뿌연 먼지와 광활한 벌판이다. 많은 인부들이 비지땀을 흘리는 공사 현장 뒤로 이미 완공된 출판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책꽂이 모양의 건물들이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샛강과 그 주변에 무성히 자리잡고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다.

또한 건축물 주변에 질서 정연하게 심어져 있는 꽃과 나무,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파라솔은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공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최대한 건물의 용도와 땅의 조건에 맞춰 건물을 설계했다고 들었어요. 페인트 한방울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미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은 무척 놀라워요."

도시 곳곳에서 특이한 구조와 양식으로 완공된 건축물들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한 건축학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코스모스 길을 따라 한참을 걸으니 '2003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을 찾은 아이와 부모들의 모습이 보였다.

"앞으로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판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생각이에요."

분주한 안내 도우미들의 모습에서 문화도시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행사장 옆에는 건물 외벽을 인위적으로 녹색케 만든 고풍적 느낌의 메인 센터 아시아 출판문화 정보 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이 곳은 방문객을 위한 안내지도, 홍보책자 등을 제공했다.

정문 부근에 위치한 출판사 '한길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한길의 큰 사상이 함석헌 선생의 사진전'이 눈길을 끌었다.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 내는 단순한 업무 공간에서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복시티 전체의 모습을 모형화한 미니어처와 설명을 볼 수 있는 인포를 지나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정문으로 향했다. 대중교통의 부재로 인해 버스들은 이미 대부분 만원이었다.

복시티의 건설 취지와 내용적 측면이 아무리 좋아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자칫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차 놓치면 여기 계산 분을 오늘 안으로 집에 들어가시기 힘들 겁니다"라는 운전기사의 농담섞인 말에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①복시티의 완공률은 현재 50%정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 ②한강의 물줄기를 이어 받은 '갈대샛강'.
- ③출판사 건물 대부분이 책꽂이를 연상케 한다.
- ④한길사 갤러리의 사진전.
- ⑤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외부에 마련된 휴게공간.



## 메아리

### 참여가 부족할 때...

▲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릴레이 CF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음료 회사의 광고문이다. 이 광고는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가 말다툼을 하다 결국 마지막 이 한마디를 남긴다. "사랑만으로 되나?". 그들은 사랑하지만 무언가 모를 부족함을 느낀다. ▲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지난해 투표를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고 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원의

어떤 대학은 학생들로 구성된 '신 학생회 기획단'을 구성해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 역시 총대위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구성돼 이번 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해 투표를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고 보궐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원의

자질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 중선위가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선거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세칙을 살펴보면 선거 날짜 오차를 범위 조정 유인물 배부 수 축소 등이다. 결국 개정된 세칙 어디에서도 투표소 중대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중선위원 교육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여전히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불투명하며 일부 단과대의 경우 대의원 장의 부재로 중선위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현 학생회 간부가 포함돼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 "개정만으로 되나?" 중선위가 선거 시행세칙을 개정했지만 '부족'함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드러난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개

정안은 오히려 변화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한다. 학생회 선거는 학생들을 대표해 일련된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원활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선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소기 대학부장  
cho55@dongguk.edu